

Sep 10. 2017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송 24장 (왕 되신 주)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543장 (통342장)

Prayer 기도 김경식 장로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출애굽기 15:22-27

Choir 성가대찬양 84장 (온 세상이 감감하여서)

Sermon 말씀 김원기 목사

‘마라에 이르렀다’

◎ Prayer 기도 다같이 Together

◎ Benediction 축 도 김원기 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30

☐ 성숙한 오후 (시즌2) : 제4과“말씀묵상”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입다의 미스바 ☐ 본문: 삿11:1-11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자유기도, 화요일부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구역장: 최영애권사 인도: 성기현장로
☐ 감자 - 구역장: 김경식장로 인도: 사라틀집사
☐ 무 - 구역장: 김봉재권사 인도: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새가족부 인도: 김원기목사
☐ 실버 - 구역장: 정선옥사모 인도: 정윤두목사

†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 2017년 표어 “예수님처럼-말씀대로”(요15:10)
- 이달에 읽을 성경은 열왕기 하 입니다.
- 2017년 9월 행사
10일: 성숙한 오후 시즌2“제4과 말씀묵상”
17일: 성숙한 오후 시즌2“제5과 주님의 기도”
24일: 성숙한 오후 시즌2“제6과 십계명”, 교역자회의, 생일축하
- 지난 주 성숙한 외출을 은혜가운데 다녀왔습니다.
- 김옥련 권사님 입원치료 중입니다.(올리브 병원: 14445 Olive view Dr, Sylmar, CA 91342)
- 병환으로 교회 출입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도처에 홍수와 산불 등으로 재해가 심합니다. 기도와 마음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성숙한 오후 매주 주일 오후(1:30 pm)
#매주 토요일 커피브레이크(6:00 am)
#토요새벽기도: 최은자권사9월16일, 성승록권사9월23일, 김봉재권사9월30일
#2017년 성도의 삶 - 말씀의 부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룹시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합니다.
- 말씀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합니다.
- 교우동정 - 이선화권사 병가료중.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 안내석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 기도 : 1부- 합심기도 2부- 성기현장로
-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2부- 황동근집사
-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교회를 섬기시는 분

- ☐ 행정목사 : 이호중 ☐ 교육목사 : Ariel Flores
- ☐ 전도사 : 황창원 ☐ 시무장로 : 김경식 성기현 조홍진
- ☐ 음향간사 : 장정관 ☐ 협동장로 : 이화정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선교헌금 : \$
주일헌금 : \$	
감사헌금 : \$	EM헌금 : \$
자녀헌금 : \$	
지난주일 합계 : \$	

갈라디아서 6:1-10 “예수의 사람들”

갈5:24“그리스도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1. 서로 짐을 진다(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1) 종이 되라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일을 누가합니까? 당시 종들이 했습니다(갈5:13). 그런데 누구하나만 종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짐을 당시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1) 범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뜻한다. 2)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시험이나 인생의 좌절 3)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영적으로 억압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예수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짐을 져야 하는 것이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을 안겨줌으로 결국 모두의 기쁨이 되므로 종의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체험케 된다.

2) 자기 짐을 지는 것이다(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잘못 놓인 징검다리를 밟고 빠진 사람이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바로 놓고 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돌을 바로 놓고 가는 것이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다.

2. 심은대로 거둔다(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1) 하나님의 법칙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법칙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 바꾸려 해서 문제가 많아졌다.

2) 한계가 있다.

사람들의 욕심은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지 않는다. 심은 것의 2배, 4배, 100배를 원하는 심리다. 아니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 한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사람의 욕심이 그 근원이다.

3) 만족하라.

7절 서두에“스스로 속이지 말라”이 말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한다(전3:3).

3. 낙심하지 말라(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 자신의 일이 선하다고 믿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살후3:13).

살후3:13은 낙심에 강조를 둔다. 낙심은 금지 명령이다. 갈6:9은 ‘행함’에 강조를 둔 문장이다. 그러니까 낙심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10절에“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이 내용을 정리하면 한 단어로“목회”라고 한다.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목회자다. 질병이 생겨 몸이 축이 나고 살 소망이 있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가 목회자다. 세상의 지혜와 의술의 한계를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목회를 하는 자들이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없는 단어다. 우리들은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